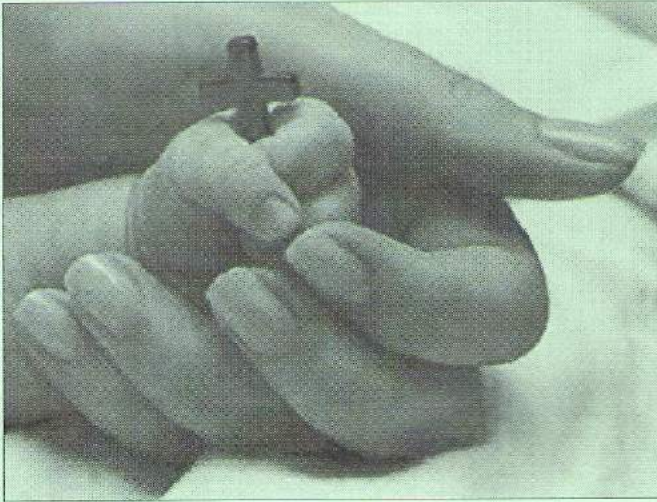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4주일
제37권 10호(가해) 2017년 1월 29일

[묵상]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에 우리는 과연 진실로 얼마나 동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들은
연약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없는,
한갓 희망을 복돋아 주고자 하는 위로의 말씀에 불과한 것일까요?

험하고 메마른 세상,
그저 마음의 풍요를 얻는 것에 만족하고 말아야 하는
몽상적 가르침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항상 참되며,
그분의 나라는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 뿐이며,
세속에 대한 욕망과 집착의 끈이 너무도 강하기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말씀이라 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하여,
그 가치를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되짚어
오래도록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넷째 토요일) 울드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오전)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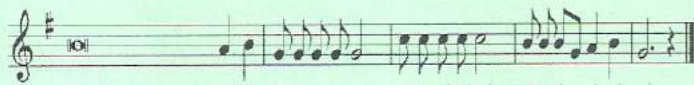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7, 4358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7, 4358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7, 4358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임은영 안젤라, 이필연 마르첼로 & 임규예 분다 & 정을진
	(생)박인혜 클라라 & 박현희 프란치스코 & 박인호 요한
주일 학생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오원순 안나, 고준희 제임스, Bob Polk, 송기분 수산나, 최윤복, 임은영 안젤라, 차소지, 원금봉 안나, 신현태 & 이효희마리아, 권순봉요안나, 장옥순, 정동점 마리아, 현시영 요셉
	(생)차양순 데레사, 손석 스테파노, 박정미 클라라, 오미카엘 & 안나가정, 차병용 클레멘스, 황운재 베드로 가정, 민석준토마스 & 미애 & 민영준마르코 & 영라이 & 미아 & 니나, 강태규 베드로, 김명숙 루실라, 최양숙 안젤라, 김병태요셉 & 김정희마리아, 이형상요셉, 김지훈 대견안드레아,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스바니아예언서(Zephaniah) 2,3; 3,12-13

화답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람 들! 하늘나라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다.
마음이 가난한 사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 1,26-31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복 음 마태오(Matthew) 5,1-12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3. 한국 교회의 쇄신(1962-1984년)

3-3. 정의 구현 운동의 전개

한국 교회는 교회 쇄신과 사회 참여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의 사회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에 관한 체계적 이론을 제시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 이후 한국 교회는 인간 기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한국 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회는 1968년 초에 발생한 강화도 '심도 직물' 노사 분류에 태도를 분명히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한다. 주교단은 이 공장의 노사 분류에 참여한 가톨릭 노동 청년회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매도되는 가운데,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공동 사목 교서를 발표하여 노동 운동의 정당성을 천명하였다. 이 사목 교서 발표는 한국 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사건이다.

1960년대 말 이후 교회의 관심은 경제 개발 과정에서 초래된 사회 문제 해결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산업 사목과 관련된 교회 단체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1966년에는 '가톨릭 농민회'가 조직되는가 하면, 1970년에는 주교회의 산하 공식 기구로 '정의평화위원회'가 발족한다.

교회는 이미 1960년대 말부터 정치적 민주화 문제에 관해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가져 왔다. 예를 들면 1969년 군사 정권이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하여 3선 개헌을 기도할 때 교회 일각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러한 교회의 정의 구현 운동은 1974년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는데, 교회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촉발제가 되었다. 정부가 파장 조작해서 발표한 '전국 민주 청년 학생 총동맹 사건'에 연루하여 그해 7월 16일 원주교구의 지학순(池學淳, 1921~1993년) 주교가 내란 선동죄로 기소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던 일단의 성직자들이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을 조직하여 불의한 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기 시작한다. 정의 구현 전국 사제단은 전국의 대부분 교구로 확산되었고, 1970년대 이후 가톨릭 인권 운동과 사회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많은 신자들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76	176	249
봉헌	264	264	217
성체	287	287	286
파견	120	120	191

참 행복

얼마 전 신자들과 함께 행복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2015년 미국의 한 기관에서 행복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143개국의 행복지수를 조사하였는데, 안타깝게도 한국은 118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테말라는 그 조사에서 무려 공동 2위를 하였습니다. GDP 기준 세계 118위인 과테말라의 행복지수가 2위라는 발표는 우리 가슴에, 그리고 현재 과테말라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도 경종을 울려줍니다.

사실 세계의 많은 이들이 행복에 대한 기준을 물질적인 것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변하는 현시대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흐름에 끌려가며, 행복을 잃어가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가끔 과테말라를 방문한 한국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과테말라에서 맛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행복은 물질적인 것들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을만 보더라도 한국과 비교해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과테말라 신자들이 느끼는 이 행복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행복은 어디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참행복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분명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가슴에 와 닿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마음이 가난하게 느껴지고, 슬픔이 가득할 때 결코 저 자신이 행복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롭게, 온유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려면 가끔 손해도 봐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에 행복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과테말라에서의 행복,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삶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직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가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서로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주소지도 배정받지 못하고, 인터넷 선도 들어오지 않은 마을이지만, 더 가난한 이들, 더 아픈 이들을 위해 조그마한 식료품이라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신 순수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통해 저도 참행복의 가치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행복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세상이 주지 못하는 행복, 하느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참행복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 김현진 토마스데아퀴노 신부 / 해외선교(과테말라)

촛불의 비밀

우리 성당 성모상 앞에는 촛불을 켜두는 곳이 있습니다.
간장종지 만한 초에 불을 켜두면 이내 다 타곤 하는데요,
바람이라도 거센 날에는 더 빨리 타더군요.
촛불이란 결국엔 거지기 마련이니깐요.
그런데 그렇게 촛불이 꺼지면
누군가 다른 초에 또 불을 붙여,
성모상 앞에는 기원을 담은 촛불이
늘 그렇게 타오르고 있다지요.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PV 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박혜경 레나타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한정숙 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을 축하드립니다.◆
 2월 1일은 오창근 베드로 본당 주임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이 되는 은경축일입니다.
 신부님의 건강과 성인 신부님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경축일 미사와 기념행사 - 1월 29일 10시 ***
 (미사 시간 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 낮 미사 : 10시)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 (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2개)
- 신청 : 1월 29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목)저녁7시30분

◆ 주일학교 신입 복사단 모집

- 자격 : 첫 영성체를 한 3학년이상 주일학교학생
- 신청서 : 사무실
- 신청마감 : 오늘 주일(29일)
- 문의 :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주일학교 견진 1 반13명 피정중입니다.

- 일시 : 1월 27일~29일
- 장소 : 1201 Mar Les Drive
Santa Ana, CA 92706

◆주일학교 중고등부 Lock-in

- 날짜: 2월 10일 (금) ~ 2월 11일 (토)
- 준비물 : 세면도구,옷, 두꺼운 외투, 침낭/베게
- 등록: Permission form 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한국학교 2016-17년도 2학기 등록 접수

- 일시 : 1월 22일, 29일 (29일까지 20% 할인 혜택)
- 장소 : 한국학교 교무실
- * 접수는 각 반별 정원제이므로 선착순 접수됩니다.

◆ 2017년 11월 SAT II 한국어 시험 대비반 개강

- 일시 : 2월 5일~6월 18일
- 자격 : 현재 8 학년 이상 등록 가능
- 등록비 : \$ 200 (교재 및 기타 자료 포함)
- 장소 : 한국학교 교무실

◆ 오늘주일 신부님 은경축일 행사로 주일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한국학교는 정상 수업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29일: 흥합미역국(PV2반)
*주일학교 :수업 없음
- 2월 5일: 김밥, 컵라면 (소공동체, 토서담당)
*주일학교 : 쇠고기미역국 (3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고천용 권오상 김경자 김교복 김 명 김병태 김성택 김정순 김정엽 김주량 김진우 김찬구 박광자 박미경 오상준 오신재 윤화경 이남현 이민상 이원형 이재철 이주창 이현주 이효세 장영진 전정일 조소영 조화숙 주대중 한혁수	성전헌금	강숙경 고천용 권오상 김교복 김정엽 김주량 김찬구 박광자 윤화경 이민상 이영옥 이주창 이현주 이효세 장영진 조화숙 주대중 한혁수
	합계:\$ 2,960		합계 : \$1,370
주일미사헌금 :\$2,425		주일학교 : 593.48	

◆청소년 분과 봉사자 모집 공고

백삼위 한인 성당의 주일학교, 한국학교의 발전은 교우 분들의 작은 기도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성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ecks@gmail.com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ecks@gmail.com

남기주 소식

◆한국의방선교회 멕시코 캄페체 선교지 방문단 모집

- 방문일정 2/23(목)-2/28(화)
- 방문지 : 멕시코 캄페체
- 활동 : 미사 봉헌과 문화탐방
- 연락처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 영어권 청년/성인들을 위한 신앙 대회 LIBERATION

- Freedom is calling
- A faith rally open to all young adult / adults
- 지도 (강사) 신부님: Fr. Joe Kim , Fr. Richard Sunwoo
- February 4th (Saturday), from 3 - 6:30 PM
- Sungsam Korean Catholic Center

123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면형무아 성경공부" 요한복음

- 개강: 수요일 2월8일(수)오후 7:30~9:00
- 금요일 2월10일(금)오후 7:30~9:00

◆"면형무아 독서모임"

- 개강 :2월9일(목)오전 9:30~11:00(둘째,넷째 목요일)
- 장소: 영성센터 (한국 순교복자수녀회 미주지부원내)
- 16276 California Ave.,Bellflower, CA 90706
- 활동 : 미사 봉헌과 문화탐방
- 문의 :김 도미니카수녀 (562)714-7769, (562)461-8100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이태옥 아가다 01/9(월)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01/14(토) 오후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1/20(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페드로 218-7340	이병찬 안토니오 01/14(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윤화경 바오로&실비아 01/14(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01/21(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정문주 프란치스카 01/20(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01/16(월)오전11시 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재용 안드레아 01/13(금)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01/16(월)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9171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팜스프링 현대리조트 01/14(토) 오후2시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혜나 베네딕다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01/13(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과엘 01/14(토)오후6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김병록 요셉 01/13(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01/10(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반장회의	1시
----------	----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속수무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동조하는 물살을 거슬러 산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느껴지는 것이 '속수무책'. 편리와 스피드를 위해 온갖 디지털 시대의 첨단을 가야하고 이런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그걸 대세(큰 흐름)라고 말합니다.

2~3불이면 무슨 열쇠든지 복사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열쇠 하나 복사하려면 사백여 불의 돈을 지불해야 하고 반 가격을 이용하려면 단 일년도 못 가 작동이 안됩니다. 복사하는 기계들은 더 진화되어 갈 텐데 이상한 일입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식이지만 속수무책의 흐름에 편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스마트 기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음성과 느낌을 배제해 버린, 더 나아가 인간관계를 기피하고자 하는 도피성이 강합니다. 어색한 느낌이 들면 너나 할 것 없이 스마트 기기로 들어가 주고받는 관계성에 벽을 칩니다.

영국의 교육전문기관이 유치원교사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취학 아동 3명중 1명이 스마트 기기 사용으로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성, 집중력 결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 구사력에 있어 문장이나 문단으로 말하지 않고 예스, 노 등의 단어만 쓰거나 심한 경우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좌우로 흔드는 등의 제스처만으로 표현하는 아이도 많다고 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이지요, 중독이 심해 스마트 기기 없이는 불안해서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디지털화 되어가는 세상의 흐름을 마냥 타고 가다가 어떤 난관에 봉착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명의 최첨단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때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질병과 우울증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손 글씨를 잊어버린 세대가 맞닥뜨려야 할 문제가 알츠하이머, 비대증, 안구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디지털에 의지해서 살게 되면 노화가 빨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문명의 효율성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성을 누리는 대신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지요.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세상의 흐름에 눈치 볼 필요 없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세상의 흐름을 조금이라도 거슬러 살아보겠다는 의지마저 대세의 흐름에 다 내어 준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얼마나 당당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입니까? 가슴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유의 불씨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교황님처럼 이 세상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의 불꽃 같은 삶을 살아내어 보는 것이 어떠할지요?

가장 소중한 것은

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럴드는 아이가 열 살이 넘었을 때 아내를 잃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아 부었지만, 애석하게도 아들마저 병을 앓다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죽고 말았다. 홀로 된 피츠제럴드는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수집하여 그 슬픔을 잊으려 노력했다.

세월이 흘러 피츠제럴드도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유언에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두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소장품을 경매에 부치라고 지시했다. 이 수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소장품들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대단한 것들이었으므로 사려는 사람들이 예상대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예술품들은 경매 전에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되었다. 그런데 그 중에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림 한 점이 있었다. 그것은 지방의 무명 화가가 피츠제럴드의 외아들을 그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의 보잘것없는 그림이었다. 제일 먼저 경매에 붙여진 것은 바로 그 그림이었다. 하지만 그 그림은 아무도 입찰하려 하지 않았다. 그 때 뒷자리에 앉아 있던 초라한 모습의 한 노인이 손을 들더니 조용히 말했다.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될까요?"

그는 피츠제럴드의 아들을 어릴 때부터 돌보았던 늙은 하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돈을 모두 털어 그림을 샀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경매를 중지시킨 다음 큰소리로 피츠제럴드의 유언장을 읽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 가톨릭 굿 뉴스

[교리상식]

미사 예물을 바치고 참여하는 미사와 그냥 개인적으로 지향을 두고 드리는 미사는 다른 점이 있나요?

☞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미사 예물을 바쳐야만 미사 지향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미사 지향을 갖고 미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사 예물을 바치고 참여하는 미사는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의 기억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어떤 가족이나 공동체가 특별한 지향(혼인, 장례, 생일, 기일, 축일, 기념일 등)을 두고 미사를 신청하면 가족이나 공동체가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사는 미신이 아닌가?

명절이 되면 신자들은 제사 때문에 갈등을 하곤 합니다. ‘제사는 미신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갈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에서 조상 제사는 매우 중요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16세기 말 중국에서 선교한 마태오 리치 신부와 예수 회원들은 선교의 가장 큰 걸림돌인 유교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전하면서 조상 제사를 우상숭배가 아닌 ‘효’라는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유교가 강조하는 효의 정신은 생명을 주신 부모와 선조께 감사의 보답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현재 나를 있게 한 조상에 대한 감사이며, 이는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이 섬기듯이’(중용 19장)

로 이어져 특히 제사를 통해 실천됩니다. 그러나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제사와 가톨릭의 제사 정신은 달라야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 계신다고 믿고 절하거나 영혼이 음식을 먹는다고 여기며 하는 행동, 아울러 지방과 위패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미신적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제사는 뿌리에 대한 감사이며 가족 공동체의 친교의 장으로 가족들이 모여 화합하고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제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지만 미사에서는 돌아가신 분이 다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음식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사 봉헌이야말로 제사 중에 제사라는 점입니다. 조상 기일의 미사 봉헌은 효성스러운 행동이며,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제사는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는 십자가상 예수님의 제사를 재현하는 것이므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근본정신은 선조에게 효를 실천하고 생명의 존엄성과 뿌리 의식을 깊이 인식하며, 선조의 유지를 따라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가족공동체의 화목과 유대를 이루게 하는 데 있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134조 1항)

‘한국 천주교 제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한국 천주교 가정 제례 예식」(2012년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승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uiz상식 퀴즈! 맞춰보세요.

1791년, 정조는 선비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를 사형에 처하고, 천주학을 금지시키며 서학 책을 불태워 버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신해박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요?

(1월22일 자 정답: 물, 성령)

「성경 속 동식물」 05 힘을 상징하는 곰

곰은 사자처럼 힘과 폭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 곰은 발의 힘이 무척 강해 큰 발과 발톱을 적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한다. 그래서 성경은 곰을 가난한 이들을 압제하는 통치자로 의인화해 표현하기도 한다.(잠언 28,15)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 망할수 밖에 없는 죄를 경책하며 심판을 사나운 짐승들과 새끼 잃은 곰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호세 13,7-8)

◆ 「성경 속 동식물」/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바-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쿠폰지참시)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 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지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